기니비사우 소식지 2022-4 호

이근욱 조영희 선교사

e-mail: kwleesss@gmail.com

phone: +245 956 838393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선교하는 현지교회와 선교하는 현지 리더 세우기 (사도행전 1:8)

샬롬! 멀리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사역 소식: 지난 선교편지 (2022-3 호)에서 나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ㄱ. **의료 교육 사역**: 의과 대학 6 학년 (본과 4 학년) 학생들의 외과학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지난 8 월 29 일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종강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 일정 차질로 정상화가 되지 않아 지금에야 모든 의과대학 과목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졸업 논문 제출, 심사, 발표를 남겨 놓은 상태이고 이후에는 12 월달 있을 졸업식으로 모든 학과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열악한 생활 환경 가운데서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어 늘 감탄했습니다. 저들을 위해 알차고 품위있는 배움의 광장을 만들고자 한 시간의 강의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드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매번의 강의가 한편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주 오래 전, 어느 목사님께서 한 시간의 설교를 위해 열 시간을 준비하시는데 마치 맛있는 빵을 굽는 것과 같이 밀가루를 고르고 반죽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정성을 다해서 아주 맛있고 영양가 높은 빵을 만들어 매주 성도들을 먹이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서 저도 한 시간의 강의가 한편의 좋은 설교가 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총 60 시간짜리 외과학 커리큘럼의 내용을 소화하여 모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밑 사진 참조).



졸업 후 정부나 의사회가 주관 또는 심사 평가하는 레지던트 과정없이 각 메이저 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을 3 개월씩 돌아보는 정도의 인턴 과정이 올해 처음 시작되었으나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들 중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자국민을 섬기는 리더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6 학년 강의로 인해 4 학년 강의도 맡아달라는 대학교 교육처장의 요청이 있어서 이제 의과대학 내 외과학은 모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ㄴ. **모자병원 의사 교육**: 기초 위내시경 코스를 마친 의사 간호사 중 위내시경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의사 2 명과 간호사 2 명이 선발되어 (아래 사진)



매주 1 회씩 병원에서 만나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씩 내시경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위내시경에 필요한 기구와 알맞는 소독제를 구입할 수 없어서 시술을 못하고 있지만 기니비사우에 내시경을 하는 의사가 없어서 환자들이 세네갈로 검사를 받으러 가는 실정이라 현지병원에서는 이번 교육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초음파 기초 교육도 요청을 받았는데 실습 대상으로 아내가 섬길 것입니다.

ㄷ. **의사 면허증**: 아직 기니비사우 의사회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기다리는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ㄹ. **공중보건 사역**: 인고레 마을 (수도에서 2 시간 거리)의 교회 목사님과 연락이 되어서 9 월 매주 토요일 4 번에 걸쳐 약 16 시간의 공중보건 자원봉사자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현지 교회가 그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1. 6 학년 외에 4 학년 외과학 강의도 맡겨주셨는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2. 지속적인 교제와 제자 훈련을 통해 저들을 리더로 세워 주시어 스스로 선교하도록. 3. 9 월달에 있을 공중보건 자원봉사자 훈련 프로그램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4. 의사 면허 취득과 저희 부부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